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세례 축일
제34권 7호(가해) 2014.1.12

[묵상]



예수님께서
성부에 대한
순종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
겸손하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엎드려 신발끈을 풀자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당신 자신을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낮추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며 강물 속으로 잠기신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렇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물속이 아니라 죽음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자녀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참으로 사랑 받는 아들인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니다.
작은 권력, 작은 재물, 작은 명예로 인하여 엎드리기를 힘들어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엎드려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신발 끈을 엎드려 풀어 줄 예수님을
지금껏 찾아다닌 것은 아니었는가 모르겠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제 엎드려,
주님의 신발끈, 아니 이웃의 신발끈을
풀어 줄 수 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언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주 일 낮 미사	(연)이필수, 김차옥 요셉 & 김복남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주창열, 최근석 다리아, 이경웅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변세연 대진안드레아, 진시웅 요한, 홍정순 세실리아, 윤희중 & 정진영, 임재화 안나, 이용식 베드로
	(생)이정훈 알렐모 & 오희운 도미니카 & 이유진 대진안드레아 & 이유헌 율리아, 강상훈 라파엘 & 최수 오틸리아 가정, 주태청 라파엘 & 평화 라파엘 가정, 이문종 바오로 & 남숙 오틸리아 가정, 김병학 대진안드레아 &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가정, 폴 노스트롬 가정, 김용 스테파노 & 문주 엘리사벳 가정, 주영석 베드로, 김정웅 요한과 막달레나의 대자녀들, 강인모 태오도시오와 강혜원아네스의 대자녀들, 이남현 막시모 & 이정아 리디아 가정, 편석준 토마스 & 미애부부, & 민영준 마르코, 김관기 라파엘 & 김병계 아가다 가정, 고천용 &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김영희 이레나 & 민순철 사비나 & 박췌니 마가렛, 전영신 크리스티나 & 장정진 메로니카,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박민식 토마스 & 박기원 리디아 가정, 토런스 북구역가정들, 하늘의 문pr. 소공동체 임원들, 토런스 동구역 가정들, 오마우라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2,1-4.6-7

화답송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달 신 백 성에 - 게 강복하여평화를 - 주시리 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제 2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10,34-38

복 음2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마태오(Matthew) 3,13-17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83	183	183
봉헌	270	270	268
성체	Heart of Worship	268	289
파견	235	261	105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1) 교부 시대

이 에페소 공의회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칭호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온전한 하느님이시라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후 교부들은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다마스쿠스의 요한(Iohannes)도 이방인들의 여신 퀴벨레에 관한 풍습을 겨냥해서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흠숭과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을 구별하였다. 마리아 공경은 하느님 흠숭에 사뭇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성인 공경보다 더 뛰어난 것임을 강조하였다.

2) 중세

이 시대 신학은 주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과 승천, 그리고 마리아의 구원의 중재 능력과 그 권위를 논쟁의 주제로 삼았다. 성모의 동정성이나 신적 모성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중세 후기에 들어서서 일부 신심가들은 온갖 상상을 통하여 마리아 덕성을 과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마리아를 ‘정의의 여사제’ (Sacerdotessa), ‘여구원자’(Salvatrix)로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마리아께서 이 세상 삶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완전하시었고 하느님의 본질을 직관하셨다거나, 태어나실 때 울지 않으셨으며, 천사와 함께 노래하셨고, 수사학, 논리학, 형이상학, 물리학 등 모든 지식을 갖추고 계셨으며, 세 살 때 이미 서른 살의 여인들처럼 지혜로우셨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예는 성모님에 대하여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과장되었던 신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3) 근대

근대에 출현한 인본주의자들은 교회의 신앙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한 신심을 반대하였다. 또 한편으로 종교 개혁자들도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여 마리아 공경을 거부하였다. 사실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M.Luther)는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고 비판하였지만 그에게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찾아볼 수 있다. 아무튼 종교 개혁자들(사와다 아키오, 『루터와 마리아』, 정종휴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8년, 13-17면 참조. 사실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것은 미신적인 성모공경 풍습이었다. 루터 자신은 결코 성모 신심의 반대자가 아니었다.)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반이성주의와 초자연적 신비주의에 매력을 느끼며 마리아 신심을 더욱 옹호하였다. 또한 성모 발현이라는 기적 현상은 이러한 대중 신심을 더욱 자극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의가 선포되었다.(1854년) 여기에 존 헨리 뉴먼(J. H. Newman)을 주축으로 전개된 영국의 옥스퍼드 운동이 마리아 신심을 고취시키는 데 가세하였다. <◆계속>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 속에 세상을 살아갑니까? 저는 명동에 살고 있습니다. 명동거리는 가게마다 돌건을 팔기 위해 큰소리로 노래를 틀거나 여러 가지 선전을 해대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화조차 하기 힘듭니다. 부디 살면서 작은 소리로도 의사전달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자연의 소리들을 다시 들으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빗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풀벌레 소리, 눈이 쌓이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까지... 인간의 고함이 멈추고,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소리도 함께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갈대가 부러져어도 꺾여버리지 않고, 꺾져 가는 심지도 고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세상, 경쟁에서 뒤지면 누구라도 노숙자가 될 수 있고 잊혀져야 하는 세상,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 때론 가까운 사람마저도 적이 되어버리고, 빈민들에게는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세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던 삶의 여유는 어디 갔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고 사랑의 대상은 결국 다른 사람들인데, 혼자 살아남는다면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의 시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느님의 측은지심이겠지요.

세 번째,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치고 기가 꺾

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공정을 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한 절망과 좌절의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사상, 그리고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무서운 테러와 전쟁,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허락하지 않는 선진강대국들의 견제구조, 그로 인해 생기는 국가 차원의 우울증과 정신질환, 그리고 수많은 자살과 범죄들.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원하십니다. 기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바른길을 가라고... 개개인의 성실과 정직이 거대하고도 불의한 세상의 폭력을 끝내는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느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한 분 계셨지요.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이 이제는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길입니다.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연민과 정이 가득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인생길, 그 길이야말로 지금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무정하고도 절망스럽기까지 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 길입니다.

◆고찬근 신부/명동대성당 주임

지금은 오르막길

이제 곧, 내가 나를 달래고 조금만 더,
내가 나를 위로하고, 그대 잘하고 있어,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건 대부분 오르막길에서지.
오르막길이 힘들긴 하지만 오르막길이 없다면
내리막길에 대한 희망이 어디서 오겠나.
내려오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일 거야.

◆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희자 마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4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주님
세례축일**

오늘(1월12일)은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주님 세례축일'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자를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전례력으로는 주님 세례축일로 성탄시기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 성모회 신년모임

- 일시 : 오늘주일(12일) 낮미사 후
- 장소 : 강당
- 점심식사와 함께 신년인사를 나눕니다.
성모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권순길 체칠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오 마우라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월15일(수)은 성 베네딕투스의 영적 아들이며 베네딕도회의 설립자로 알려진 성 마우로 축일로, 본당 오향숙 마우라 수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요셉회 설 맞이 잔치

- 일시 : 1월19일(주일) 낮미사 후 * 장소 : 강당
- 행사내용 : 율놀이, 제기차기, 노래자랑 등 다양한 놀이
-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이 준비되어있음
- 부부동반 참석 환영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 오는 2월2일(주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30일(목)까지 성물부 김막달레나 또는 사무실
- 문의 : 김막달레나 ☎(310)539-3377

◆ 2013년(작년) 교무금/성전헌금 봉헌내역 가정통신문 발송
작년 한해동안 봉헌해주신 교무금과 성전헌금, 감사헌금, 특별목적헌금 내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이 1월13일(월)부터 교우여러분 각가정에 우송합니다. 가정 통신문의 봉헌내역은 인컴택스리턴(개인세금보고)을 위한 헌금증빙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외의 기부금을 추가하실 분은 사무실 재무담당자에게 신청하십시오. 주소변경으로 받지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故이태석 신부 4주기 추모미사

- 일시 : 1월18일(토)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2040 Artesia Bl.)
아프리카 후원회 이사장 김해원 가브리엘 신부
- 문의 : ☎(310)617-3110

◆ 배론청년회 스키 트립

- 일시 : 1월17~19(금,토,일)
- 장소 : 빅베어
-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비회원도 환영합니다.)
- 문의 : 이범주 다니엘 청년회장 ☎(310)988-8785

◆ 갑오년 '설날'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월31일(금)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후 세배와 떡국 나누기
- 미사예물 봉헌 : 26일(주일)까지 사무실

◆ 한국학교 교사직 관심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 자격 :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으신분(6개월 연수받음)
- 대상 : SAT, 유치반, 중급반 선생님(한국학교에 자녀보내시는 학부모님 우선 환영합니다.)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12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8학년 핫도그 & 칩)
- 1월19일(주일) : 토런스 서 1/3반(소고기무국 \$3)
* 주일학교 수업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국세찬 권진혁 김기정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영경							성전헌금						
	김옥보	김옥찬	김 옥	김원모	김일선	김정웅	김종렬	국세찬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 옥	김원모	노세미
	김종훈	노세미	노순애	노혜숙	민기남	박씨니	박인식	노순애	노혜숙	민기남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박정자	박정희	방정복	배기엽	석순영	성미선	송재훈	석순영	이근모	이복임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주대종
	오일순	이근모	이복임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의 명	주용순	최상만	최이원	최태훈	황인종	황인협	
	주대종	주용순	최상만	최이원	최태훈	황인종	황인협	주용순	최상만	최이원	최태훈	황인종	황인협	
	이크리스							이크리스						
							합계 : \$3,445							
주일미사 헌금 : \$2,968							2차헌금 : \$1,118							
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 미사헌금 : \$2,399							구유예물 : \$49							
								합계 : \$3,585						
								감사헌금 : 문향업						
								달력광고후원금 : \$90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시작...등록받습니다.

- 2학기시작 : 2월1일(주일) 낮 12시30분
- 등록장소 : 오늘주일(1월12일)부터 오전 11시~오후4시
성당2층 한국학교교무실

- 학비 : 첫째 \$200, 둘째 \$190, 셋째 \$180, 넷째 면제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연수

- 일시 : 1월19(주일)~20일(월) 오전 9시30분~오후 6시
- 장소 : 본당 2층교실
- 대상 : 한국학교 교사
- 목적 : 지난학기를 평가하고 다음학기의 계획과 학생평가방법특강(고려대 이선우 교수) 수강

남가주 소식

◆ 전례특강 “일상속에서의 미사 전례의 의미”

- 일시 : 2월2일(주일) 오후 2시~오후 5시 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강사 : 조학균 신부(대전 가톨릭대학 전례학교수)

◆ 4박5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2014년 2월5일(수)~9일(주일)
- 지도 : 조학균 예수회 신부
- 장소 : Prince of Abby(650 Benet Hill Rd. Oceanside)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시즌4-발렌타인데이 스페셜

- 미혼 가톨릭 청년들의 유쾌상쾌통쾌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좋은 인연의 시작!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일시 : 2014년 2월8일(토) 오후 5시
- 대상 : 남자(84-74년생), 여자(86-74년생)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참가비 : \$80 *신청마감 : 1월26일(주일) 남녀 선착순 20명
- 신청서 : www.stkc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이창익 라파엘 ☎(858)880-8787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공소예절 : 1월18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 '커피와 신앙의 만남' 선물용 커피 판매

- 이냐시오 커피 선물세트
- 판매 : LA 성 아그네스 성당(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익금용도 : 신자 비신자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쉼터조성, 가난한 이웃돕기
- 문의 : 아그네스 성당 이냐시오 카페 ☎(323)731-4433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변혜경 올리아나 920-5253 1/11(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213-276-3168 1/11(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0(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토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병찬 안토니오 780-3258 1/17(금) 오후 7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최지영 카타리나 848-0590 1/11(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윤선희 로사 710-8416 1/16(목)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최기남 야고보 968-8280 1/17(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13(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올리아 404-1607	김병태 요셉 999-1448 1/13(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1/11(토) 온천관광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1/10(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조혜란 엘리사벳 602-402-8518 1/17(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1/10(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오현희 골롬바 617-3568 1/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201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문(요약)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1코린 1,13)

201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1월18일~25일까지) 자료집은 캐나다의 그리스도인들이 초안하고, 교황청 교회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검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에는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던 원주민들과 유럽에서 대규모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문화와 언어 등, 특히 캐나다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유독 원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치 운동을 전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과 자원, 문화와 언어가 서로 조화되는 일, 그중에서도 원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는 일 역시도 일치 운동의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며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라며 코린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사도 바오로의 질문을 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우리들 역시 이 사도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교 역시 처음 도래되었을 때 민족문화와 갈등하며 많은 고난을 경험한 천주교와 100여년 뒤에 들어온 장로교, 감리교 등 그리스도 교회들은 누가 결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차별화 정책을 채택함으로 갈등의 역사를 써왔으며, 여전히 서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천주교나 다른 여러 그리스도 교파들의 분열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시지 않은 것과 같이 교회도 결코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의 과제를 보다 명료히 하고, 보다 강화된 활동을 위하여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창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한 일치와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이해와 화해의 정신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다는 말은 주님께 드릴 온전한 신앙고백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전례사상

연중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연중시기는 33주간이나 34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님 세례 축일’ 후 월요일부터 ‘재의 수요일’ 전까지의 기간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월요일부터 대림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연중시기는 일반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특별한 현의에 대한 축제를 지내지 않고, 그리스도 구원의 신비를 다양한 면에서 경축합니다. 그러므로 연중시기는 모든 복음의 종합이며, 하느님 나라로 향한 순례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왕 대축일’ 로써 끝을 맺습니다.

◆자료 :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게 됩니다’

정의철 신부/생활성서